



정교회주보

제2410호

2023.3.5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그리스 고린토는 바울로 사도가 두 번째 선교여행 중 처음 방문해 일 년 반을 머무르며 선교에 힘썼던 도시였다.(사도행전 18,1~17 참조) 이를 기념하여 성 사도 바울로 대성당(사진)이 세워졌다. 원래의 성당은 1858년의 대지진으로 붕괴되었고, 현재의 성당은 1930년대에 다시 세워졌다. 성당 전면의 오른쪽에는 성 사도 바울로, 왼쪽에는 성 사도 베드로의 성화가 그려져 있다.

사순절 제 1 주일 (정교 주일)

성 코논 수도순교자
(제5조 • 조과 복음 5)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제5조 부활 찬양송	82
정교주일 찬양송	223
성당 찬양송	
사순절 시기송	223
사도경 : 히브리 11,24~26; 32~40	223
복음경 : 요한 1,43~51	137
성모송	62

• 정교주일 성상 행렬 224

참된 신앙을 유지하다

진리의 은총이 찬란하게 빛나는도다. 예전에는 희미하게 예시되었던 것이 지금 밝게 성취되었도다.

보라, 교회는 증언의 장막이 예시했던 그리스도 몸의 형상을 천상의 장식처럼 옷 입었도다.

교회는 우리가 경배하는 분의 형상을 흠 없이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 참된 신앙을 유지했도다.

달리 생각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니, 신격화하지 않으면서 경배하는, 육화된 말씀의 형상 안에서 우리 자신 또한 영화롭게 되기 때문이로다.

신자들이여, 성화상을 경배하며 찬양합시다. 하느님이여,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유산을 강복하소서

'트리오디온 전례서'에서

귀향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특히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피조물인 사람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에덴동산에 머물렀을 때엔 하느님께서 저녁 산들바람 속에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고, 주님과 직접 대화도 나눌 수 있었기에(참조. 창세기 3,8-12) 에덴동산은 하느님의 나라인 천상의 세계이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이 천상의 세계로부터 추방된 이후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은 사람의 고향인 천상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염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람이 하느님의 나라, 즉 천상의 세계로 귀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상기시켜주는 날들이 바로 교회가 정한 사순절 기간이다.

이 기간은 세속적인 삶으로 인해 변질된 사람이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 하느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신자들에게 참회의 시간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기간이기도 하다.

탕자의 비유에서 보듯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들고 먼 나라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결국 먹을 것도 없이 굶어서 죽을 만큼 죄 많은 삶을 살았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는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영광스러운 삶을 기억하며 자신의 그릇된 삶을 회개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마침내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

사람은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느님 곁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으며 오히려 사탄의 노예가 될 뿐이다.

아담이나 탕자가 선택한 것처럼 자유롭고 사치스러우며 방종한 삶, 즉 하느님의 곁을 떠나 스스로 살아보겠다는 욕망과 이기심으로 오만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도 거룩한 기간인 대 사순절에 온 마음을 다하여 참여함으로써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겠다. 그리하여 우리도 천상의 나라로 들어가는 기적을 맛볼 수 있어야겠다.

하느님의 식당에서

니콜라스 야누사스 신부 저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잠시 꿈을 꾸어봅시다.

모든 사람이 친절하고 선한 심성을 가진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서로 진심 어린 기원을 주고받고, 만나면 행복해하는 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온통 빛과 기쁨으로 충만하며, 사랑이 넘치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세상을 꿈꾸어 보세요!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농담 하시는 거죠, 신부님! 그런 건 모두 유토피아 같은 공상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래, 그냥 하나의 도전 혹은 초대라고 봐 줘! 네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실험이라고 생각해봐도 좋고. 셀 수 없이 여러 번 말이야... 빛의 '유토피아'를 어디서 경험할 수 있는지 아니? 그건 말이야, 성찬예배가 막 끝난 모든 정교회 성당 안에서 경험하게 된단다. 주일 성찬예배가 끝나기 2분전 자리에 앉아서 네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할 일을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삶을 가늠해보는 사람, 그리고 즐거나 지루해하는 사람 등등 여러 사람이 있지. 그렇더라도 사제가 폐식사를 하자마자 갑자기 어디인지 모를 곳에서 모든 사람의 영혼 안에 스위치가 켜지고는 모든 것이 변하지! 웅성거리는 소리, 웃음, 서로를 향한 기원과 인사 등등! 이런 것이 바로 빛이고 생기, 활력, 행복이지! 우리 안과 밖에 수

없이 많은 빛이 쏟아지는 거야... 그리고 주님의 은총이 사람들의 감각과 마음과 이성에 가닿는 거고... 우리의 모든 실존은 높이 들어 올려지고, 일상의 삶에 쌓인 먼지 대신에 기쁨 어린 광채가 눈에 일렁이지! 그래, 모든 사람의 눈이 웃고 있어! 그때는 실로 말할 수 없는 감탄과 존경의 마음으로 우리 영혼이 소리치는 거야. '하느님의 세상은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의 하느님, 감사합니다! 나의 성모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묻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일에 성당을 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런 경험이 그저 이해할 수 없는 유토피아일 뿐입니다.

"와서 보라"(요한 1,46)라고 그리스도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고, 오늘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을 향한 영혼의 목마름은 그냥 성당에 가서 초를 하나 켜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찬예배 안에서만 해소됩니다. 성찬예배 안에서 영혼은 하느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되돌아와 여러분의 영혼을 양육하고 자라게 하는 것은 바로 이 기쁨입니다.

자, 다음번에 성당의 종소리를 듣게 되면, 하느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양식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예배 안내

- * 화, 목 오후 5시
석후대와
- * 수요일(3/8) 오후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 * 금요일(3/10) 오후 6시
성모 기립 찬양 (2 스타시스)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바랍니다)

-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수요일 오후 5시
금요일 오전 9시

■ 주일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 (줌)을 통해 주일학교 모임이 있습니다. 부모님들과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줌 링크는 각 지역 성당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식

■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희생자들을 위한 기도식

지난 2월 25일(토), 서울 성당에서 발발 1주년을 맞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국 희생자들을 위한 추도식이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로만 신부,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 안토니 웨스터만(안티오키아 총대주교청) 신부의 집전으로 거행되었습니다. 더불어, 전쟁이 조속히 종식되고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하였습니다.

■ 사순절 예배에 참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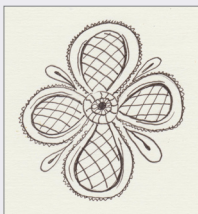
대교구는 올해의 사목 지침을 통해, 신자들이 기도에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에서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방법의 하나는 주중에 거행되는 사순절 예배에 참례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참고하셔서 많이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주 성모 안식 성당' 건축 공모전에 출품

전주 성당 공사 시행사인 제이와이 건축사사무소는 건축 공모전에 '전주 성당 건축'을 출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교회 성당의 건축 양식이 제대로 평가받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웃에 대한 헌신

성인의 가르침



아가톤 사부는 오직 이웃을 평안하게 해주기 위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었다.

그가 다른 형제 수도사들과 함께 강을 건널 때는 제일 먼저 노를 저었고, 방문객이 자신의 은수처를 찾아오면 한 손으로는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또 다른 손은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 식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언젠가 정원을 가꾸는 데 큰 도움을 주는 팽이를 선물 받은 적이 있었다.

“이 팽이 정말 멋진데!” 어느 날 아가톤이 손에 들고 있던 팽이를 보고 한 형제 수도사가 말했다.

그러자 아가톤 사부는 그 형제 수도사가 마음에 들어 한 그 팽이를 받아 가기 전에는 그가 그곳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